

당신은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1-2, 12-19

김연미 사모

예전에 한 동료가 자신의 믿음을 저에게 이렇게 나눴는데 참으로 잊을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에서 자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생소했고, 제가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내 삶에 덧붙였을 뿐인가?’**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씨름하며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믿음 여정을 통해 이 질문을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라고** 부르고 있으며, 저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지점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예수님과 첫 만남 - 자신의 죄인 됨과 예수님의 주 되심을 깨닫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기잡이는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실망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누가복음 5:8).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니었습니다.

2. 제자로 살았지만 완전히 자기를 내어드리지 못한 시기

그는 예수님과 함께 3 년 동안 생활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깨우치시는 등의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는 열두 제자의 리더이기도 했지만 기복이 심하기도 했지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는 놀라운 약속까지 받았습니다(마태복음 16:18).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됩니다**”라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6:21-23).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했고, 자신의 계획과 맞지 않는 예수님의 계획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3.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 목숨이 두려웠던 베드로

그때 베드로의 가장 큰 무너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는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고 맞으시는 모습을 보며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싶었고, 아직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길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부활을 약속하셨음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4.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회복의 만남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비전이 없어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의 장면을 다시 재현하셨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넘칠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음에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가 안주한 자리로 찾아와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세 번 모두 **“주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 완전한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5. 성령을 받고 생명을 드린 베드로

베드로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6).

이번에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을 해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죽음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삼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해지고, 멈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 평생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산 삶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후 수많은 박해를 이미 경험한 나이 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거나 이방 제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는 십자가형, 맹수에게 던져짐, 산 채로 불태워 ‘인간 횃불’로 만드는 등 여러 형태의 고문과 처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결코 미화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전서 4:12-13, 16)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18-19)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세상의 문화와 반대되는 길을 걸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전한다면, 이런 불시험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곧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임을.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께서 자신 위에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자신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을 알았기에 부활은 그에게 확실한 현실이 되었고, 이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다시 뵙고 영원히 함께 살 날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결국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간증

저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자랐지만,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랄 때 주일마다 교회에는 갔지만, 꾸준한 기도나 성경 묵상의 삶은 없었습니다. 기도는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청원 기도였고, 예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 속 지니처럼 대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순종해야 할 최고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일부분’이었지만, 내 삶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에 유학 와서, 아메리칸 대학교 캠퍼스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내 양을 먹이라**”—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선교사 친구 릴리가 스미스채플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날 저는 완전히 무너졌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고, 믿음을 겉에 살짝 뿌려놓은 채 스스로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균형 잡힌 삶’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마태복음 16:25)

이 말씀이 그때부터 제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삶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가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완전히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 믿음으로 전적으로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한 망설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제 삶이 그분을 위해 완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의 말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베드로의 삶의 모습에 비춰볼 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 이제 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주 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단계입니까?
-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채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삶의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 예수님께로부터 회복의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까?
- 아니면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든, 예수님은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곧 죽으라는 부르심입니다—교만, 안일함, 안전에 대한 집착, 자기 중심적인 계획과 같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영원히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영원히 누릴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다음과 같이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17-18)

영원과 비교하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저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영원을 준비하며 살고, 그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길 기도합니다. 혹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